

아동시인 민병준의 운률조성에서의 개성

리 들 국 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동문학작가는 어린이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 친근한 교양자이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32페이지)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작품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작가들중에는 의의 있는 아동시들을 창작함으로써 어린이교양에 적극 이바지한 아동시인 민병준도 있다.

민병준은 1960~1980년대에 창작활동을 벌려 이 시기 아동시가문학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작가이다.

김승길이나 림금단, 김청일 등 많은 아동시인들이 소학교시절 어린이들을 독자대상으로 정했다면 민병준은 대체로 중학시절, 사춘기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는 어린이들을 현재상태의 아동 그자체보다도 앞날에 대한 꿈과 리상을 지니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아동으로, 부단한 발전속에 있는 아동으로 보고 형상하였다. 그의 아동시가문학은 반영된 서정적주인공의 폭넓고 자유분방한 사상정서와 생활반영의 특성으로부터 운률에서 일련의 개성을 가지고있다.

아동시인 민병준의 운률조성에서의 개성은 무엇보다먼저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정형률에 가까운 변형률을 적극 탐구하여 살려쓴것이다.

학령전과 소학교시절 어린이들은 사상감정이 매우 단순하며 정서변화와 호흡속도가 빠른 반면에 호흡의 폭이 작다. 그러므로 그들의 단조롭고 명백하면서도 밝고 활동적인 감정정서를 담는데서는 시어구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유시보다 일정한 소리마디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정형률이 적합하다.

중학교시기는 소학교시기에 비하여 정서적령역이 넓어지고 지적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상감정이 보다 자유분방해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단조롭고 규칙적인 정형률보다 그에 가까운 변형률이 적합하다.

정형률에 가까운 변형률은 성인시와 구별되는 아동시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정형률에 다 담을수 없는, 래일에 대한 꿈을 안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사상감정을 담을수 있는 우점이 있다. 즉 정형률이 아니라 정형률을 동심에 맞게 변화시킨 변형률을 리용하여야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 어린이들의 사상감정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다.

민병준은 소학교를 갓 벗어난 아동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아동시들의 운률조성에서 7·5조, 8·5조의 정형률에 가까운 변형률을 적극 탐구하였다.

상팔담에 고였을 땐 동그란 호수

8

5

구룡연절벽에선 세찬 폭포수

7

5

옥류동 굽이굽이 흘러흘러 큰 개울

7

7

금강산 맑은 물은 모양도 가지가지

7 7

절벽에서 훑날릴 땐 뽀얀 물보라

8 5

바위에 부딪쳐선 맑은 구슬알

7 5

유유히 흘러가니 고운 비단필

7 5

금강산 맑은 물은 제주도 가지가지

7 7

백가지 그 모양 천가지 그 채주

6 6

모두모두 우리에게 안겨주시려

8 5

금강산등산길로 손저어 불러주신

7 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7 6

그 사랑 노래불러 길이길이 전하려

7 7

구룡연폭포에선 언제나 북소리

7 6

옥류동골짜기에 차넘치는 물노래

7 7

명승의 금강산엔 노래도 끝없어요

7 7

(동시 《금강산 맑은 물》)

이 동시는 외적형태에 있어서는 정형시인것 같으나 따져보면 정형률을 변화시킨 변형률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 동시는 총 16행으로 이루어져있는데 8·5조가 세행, 7·5조가 세행, 7·5조의 변형률인 7·7조가 일곱행, 7·6조가 두행, 6·6조가 한행으로 이루어져있다.

동시 《어데나 다 갈수 있는 통행증》도 모두 31행으로 이루어져있는데 7·5조, 8·5조가 15행이고 나머지는 모두 7·5조의 변형률로 되어있다.

정형률을 변화시킨 변형률을 리용한 작품들로서는 이밖에도 동시 《사랑의 태양등》, 《활짝 폈어요》, 《낮에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 《어디로 가나》, 《동해의 보름달》과 같은 작품들이 있다.

아동시인 민병준의 운률조성에서의 개성은 다음으로 여러가지 표현수법을 적극 탐구 활용함으로써 꿈이 많고 리상과 포부가 큰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정서적특성에 맞게 운률

의 양상을 격조가 높게 조직한것이다.

민병준의 아동시들에 등장하는 서정적주인공은 래일에 대한 꿈이 많고 리상과 포부가 높은 어린이이며 이로부터 주인공의 감정정서는 낙천적이고 열정적이며 동시에 담겨진 생활 역시 매우 격동적이고 미래에 대한 지향성이 강하다. 서정적주인공의 양양된 정서는 민병준의 아동시들의 운률이 격조높은 양상을 띠게 하는 전제로 된다.

민병준은 이것을 운률조성의 보조적수단들인 자리바꿈법과 수사학적부름법, 수사학적감탄의 적극적인 리용으로 훌륭하게 보장하였다.

우선 운률을 구사하는데서 자리바꿈법을 활용하여 시문장의 술어를 앞에 놓음으로써 격조높은 운률을 구사하고있다.

자리바꿈법은 문장성분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표현적효과를 나타내는 수법으로서 자리바꿈을 잘하면 동시의 호소성, 전투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동시 《큰 씨름터》에서 《이기자/이기자/원수님처럼》이라든가 《우리도 커가자/원수님처럼/공부도 체육도/원수님처럼》과 같은 시문장들에서는 술어를 앞에 놓음으로써 시문장에 박력있고 힘찬 기백이 맥박치게 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려는 서정적주인공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정을 뜨겁게 구가하고있다.

자리바꿈법을 리용하여 술어를 앞에 놓는 시문장형식을 취한 작품으로서는 동시 《어머니조국의 나이를 세며》를 들수 있다.

...

자랑한다 조국이어! 그 넓은 품에서
11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이 열리고
세금을 모르는 첫 인민이
원수님 은덕을 목메여 노래한다

보아라 맑고 푸른 저 하늘은
주체의 정기 지닌 조국의 눈빛
이 땅에 만발하는 고운 꽃들은
인자하고 부드러운 조국의 미소

...

나는 센다 9월의 이 밤
온 세상이 우러르는 어머니 나의 조국
원수님 모시고 길이 번영할
주체조선의 희망찬 새 나이를 센다

이 작품의 시문장조직에서도 역시 주어와 술어의 자리를 바꾸어 술어를 항상 시의 첫 련의 맨앞에 내세움으로써 시의 전반이 격조높은 양상을 띠고 전개되게 하여 서정적주인공의 어머니조국에 대한 똘어넘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힘있게 노래하고있다. 즉 자리바꿈법으로 시문장에 보다 강한 박력과 힘찬 물조를 조성함으로써 서정적주인공의 사상감정을 더욱 명랑하고 기백있게 노래하였다.

또한 운률을 구사하는데서 수사학적부름법과 수사학적감탄을 리용하여 호소성을 높임으로써 격조높은 운률을 조성하고있다.

수사학적부름은 문학작품에서 호소하는 형식으로 묘사대상에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표현의 정서를 돋구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어떤 대상을 찾거나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시의 사상감정을 보다 더 강하게 호소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쓴다.

실례로 동시 《마감구절 적고야말 4월이 왔다》를 들수 있다.

...아 진영숙 진영숙 귀중한 동무야
두 주먹 부르짖고 억세게 싸우다
숨이 저 말 못하는 마지막에는
가슴에서 흐르는 붉고 뜨거운 피로
싸움의 글발을 쓰고 간 동무야

...

네 꿈이 활짝 핀 기쁨의 땅에서
네가 쓰던 편지의 마감구절을
《어머니 통일됐어요》이렇게 맺을
영숙아 봄이 왔다 장한 봄이 왔다

이 작품에서는 어머니에게 채 끝맺지 못한 편지를 써놓고 4월의 항쟁거리로 떠나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남녘땅의 나 어린 동무들의 뒤편까지 합쳐, 꽃처럼 스러져간 그들의 모든 희망과 모든 념원을 다 합쳐 조국을 통일할 열망에 충만되어있는 어린 서정적주인공의 피끓는 웨침을 수사학적부름법을 리용하여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동시에서 《진영숙 진영숙 귀중한 동무야》, 《싸움의 글발을 쓰고 간 동무야》, 《영숙아 봄이 왔다 장한 봄이 왔다》와 같은 수사학적부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의 운률에 힘있는 맥박을 흐르게 하여주고 남녘의 동무를 안타까이 부르는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호소와 피끓는 열정을 더해주고있다. 즉 수사학적부름을 동시의 사상감정을 보다 더 호소적으로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수사학적감탄은 문학작품에서 대상에 대한 필자의 감동이나 감탄을 정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수법의 하나이다. 수사학적감탄은 작품에서 묘사대상을 뚜렷이 강조하고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작품의 정서적색갈을 돋구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사학적감탄도 역시 동시의 사상감정표현에서 강한 호소성을 자아낸다.

민병준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이러한 수사학적감탄을 적극 리용하였다.

...

8메타닝아, 우리 나라 새 기계야
어서 많이 깎아라
집체같은 큰 기계

재빨리 쇠밥을 떨구는 너로 하여
파철 모을 생각도 부쩍 나는구나
철일랑 걱정말고 어서 많이 깎아라
(동시 《생일날》)

작품의 마감에 반복리용된 《어서 많이 깎아라》와 같은 시킴의 형식으로 된 수사학적 감탄은 동시의 사상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약동하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열렬히 구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힘있는 호소성을 자아내고 격조높은 운률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한편 동시 《귀중한 첫삽》에서는 확신의 형식으로 된 수사학적감탄을 적극 리용하여 격조높은 운률을 조성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세개의 련이 마지막행마다에 《사랑의 기념비가 솟아오르리라》, 《세월을 디디고 더 높이 솟으리》, 《장군님의 사랑속에 길이 번영하리》와 같은 수사학적감탄들을 반복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사랑과 뜻을 이어 만경대혁명학원은 세월의 언덕우에 솟아 길이 번영하리라는 사상감정을 힘있게 강조해줄뿐아니라 운률에서 강한 호소성과 높은 격조를 조성하고있다. 즉 수사학적감탄과 수사학적부름을 리용하여 서정적주인공의 양양된 사상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수사학적부름법과 수사학적감탄을 리용하여 운률에서 격조높은 양상을 띠고있는 민병준의 작품들중에는 이외에도 동시 《행복한 아이들》, 《2월 16일 영광의 날이여》, 《장군님 찾아가는 아이들》, 《해빛밝은 창문》, 《우리 집》과 동시 《사랑은 만리에》, 《아이들의 도시》, 《명절광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화앞에서》, 《왕이 많은 공장》, 《소년의 대답》, 《나는 어리지 않아요》, 《앞으로 갓!》, 《변함없는 그 나이》, 《넓은 운동장》, 《혁명학원 정문으로》와 같은 작품들이 있다.

민병준의 아동시들은 약동하는 시대와 함께 숨쉬며 고마운 조국의 장한 아들딸로 자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높은 리상을 지닌 우리 어린이들을 적극 떠밀어주고 앞날에로 힘있게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민병준의 작품들을 통하여 동시창작에서 어린이들의 동심을 방불히 그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조국의 기둥들로 키우는데 힘이 되고 불씨가 될 동시들을 창작하려는 그의 독특한 안목과 뜨거운 창작적열정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우리는 작가들의 우수한 창작경험과 창작적개성을 아동시창작에 도입함으로써 아동시가문학을 발전풍부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